

## 〈상상마당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MANIFESTO"**

KT&G 상상마당은 2008년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이하 KT&G SKOPF)를 시작하여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진작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가들을 지원하여 전시와 출판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6년의 시간 속에 사진을 찍고 보는 사람들의 감성과 생각이 변했다. 또 사진을 만들고 소통시키는 제도도 변했다. 그런 변화를 담아서, KT&G 상상마당은 새로운 매니페스토를 준비했다. 이 매니페스토는 KT&G 상상마당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 스코프 프로그램이 작가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것은 스코프의 소망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1. 시각성에 대한 고민**

인간은 눈이 달려 있는 한 끊임없이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보면서 알아나간다'로 바뀌어야 한다. 눈은 머리가 시키는데 따라 데이터를 접수하는 수동적인 스캐너가 아니라 탐색하며 생각하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진은 본다는 문제를 탐색하는 예술이다. 본 것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변형하고 퍼트리는 것이 사진이 하는 일이다. 이 시대의 사진 작업은 바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왜 보는가, 왜 사진을 보는가, 왜 사진으로 보는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볼 것인가 등의 문제들 말이다. 요즘의 사진가들은 그 점을 잊은 것 같다. 맑은 눈으로 보기 전에 오염된 말들로 해석해 버리고 재단해 버린다. 사진은 보는 문제를 떠나 말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 사진은 말의 게임이기 앞서 시각의 게임이다. 그 점을 잊지 말고 다루는 작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2. 차별화의 태도**

기존의 사진 흐름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 사진은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선배나 선생 세대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상 같은 소재, 같은 양식의 사진들이 복제될 것이다. 작가란 어떤 좋은 사진을 보는 순간 '따라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존재이다. 기존의 작가들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은 남의 말들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양식화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남의 것을 차용하는 작업도 너무 많다. 작가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세상의 온갖 좋은 소리들에 과감하게 귀를 닫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저절로 남들과 차별화된 사진이 나올 것이다.

### 3. 탐험하는 사진

우리가 아는 동서고금의 대가들은 다 새로운 시각적 표현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탐험가들이었다. 결국 예술작업이란 남이 가지 않은 낯설고 거친 길을 찾는 것이다. 낯설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면 새로운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산에 가려면 등산화가 필요하고 수영을 하려면 신발을 버려야 하듯이, 신발을 바꿔 신으면 걷는 방법과 가는 곳이 바뀐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은 새로운 나침반, 새로운 지도, 새로운 바퀴, 나아가 새로운 엔진을 요구한다. 사진에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주하는 사진이 아니라 탐험하는 사진이 필요하다.

### 4. 유머감각이 있는 사진

유머란 단순히 값싼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설픈 패러디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유머란 이제까지 받아들여져왔던 감각과 의미를 비틀어 다르게 해석하는 센스이다. 유머감각이 부족한 우리 사회, 그중에서도 가장 유머가 부족한 예술이 사진이다. 도무지 무겁고 심각하기만 했지 세상 구석구석 숨어 있는 의미의 편린들을 재치 있게 읽어내지 못하는 사진이라는 예술을 바꾸려면 유머감각이 있어야 한다. 유머감각이란 곧은 것에서 굽은 것을 보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밝은 눈이다. 유머는 창의적 에너지의 근원이다.

### 5. 사진의 자리에 대한 고민

사회 속에서 사진의 위상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이 소위 사회적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는 시대의 고통을 담은 사진도, 심오한 예술사진도 소비의 격랑 속에 파묻혀 금방 의미가 탈색되거나 엉뚱한 맥락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럴 때 진지한 사진 작업은 사회의 다양한 시각문화의 스펙트럼에서 사진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진의 자리들이 있다. 사진의 구멍가게도 있고 백화점도 있다. 골목도 있고 광장도 있다. 내 사진의 메시지를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출판일 수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의 전시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블로그일 수도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사진의 장소를 모색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2014년 2월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KT&G SKOPF 작가 선정

1. 사진을 매체로 해야 한다.
2. 시각성에 대한 고민과 사진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작업에 드러나야 한다.
3. 매니페스토에 근거하며, 우리시대에 필요한 사진작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근적인 작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작가적 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작업 계획서 중심으로 심사)
5. 기존의 사진 흐름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탐험하고 유머감이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6. 1회 이상의 그룹전을 진행한 작가이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도록, 포스터, 매체 보도 자료, 갤러리 증명서, 전시 당시 평론 등)
7. 지원 작품으로 응모하는 작품은 국내·외 개인전을 진행하지 않은 작품 및 컨셉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단, 그룹전에 참여했던 작품과 컨셉은 가능함)
8. 상상마당 응모 당시 동일한 작품 또는 컨셉으로 타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었거나 지원중인 작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심사위원단의 협의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9. 국내·외 갤러리 소속 작가가 지원 대상일 경우, 소속 단체와 무관하게 지원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지원 기간 중 성실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